

● **인성이 전투력이다** <7> ‘초급간부 행복플러스’ 개발한 신현복 상무대 근지단 군종실장

육군의 2017년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 교육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간부 인성함양 교육’과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 교육’, 그리고 ‘기회 및 생활화 교육’이다. 여기서 간부 인성함양을 위한 주요 교육 중 하나가 ‘초급간부 행복플러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상무대 근무지원단 군종실장 신현복(목사·군종 52기) 중령을 만나 프로그램의 의미와 올해 개선 사항을 들어봤다.

진급하면 행복하겠지, 전역하면 행복하겠지?

## “간부 여러분,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전방 근무만 끝나면 행복하겠지, 진급하면 행복하겠지, 전역하면 행복하겠지’라며 행복을 미루는 거죠. 하지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3년 ‘비전캠프’를 개발한 데 이어 계층별 행복플러스 프로그램을 개발, 행복 중심 인성교육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신 중령은 행복, 그것도 지금 처한 환경에서의 행복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신 중령이 말하는 ‘행복’과 ‘인성’은 어떤 관계일까?

“인성은 행복으로 가는 다리 같은 것입니다. 행복이 훨씬 더 큰 목표이자 카테고리죠.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입시 부담으로 청소년들조차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대로 군대로 오니 행복하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힘들어하는 장병들에게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하고 전우들과 관계의 중요함도 일깨우는가 하면 돕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함으로써 행복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강점으로 꽃피우는’ 등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초급간부 행복플러스는 신 중령에게 자식 같은 존재다. 지난 2012년 육군훈련소 군종참모로 재직할 당시 테스크포스(TF)의 장을 맡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듬까지 직접 정해서다. 그는 3군단 군종참모로 자리를 옮겨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하며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2014년 당시 군단장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거의 매주 초급간부 행복플러스를 시행했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해 초급간부 자살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최전방 병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요청도 잇따라 ‘찾아가는 행복플러스’를 추가 집행하기도 했죠.”

초급간부 행복플러스가 내세우는 핵심 프로그램은 ‘FIRO-B (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Behavior) 심리검사’.

“기존의 심리검사가 개인의 성격·육구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



‘초급간부 행복플러스’에 참가한 간부들이 조별로 종이 탑을 쌓으며 마음의 벽을 없애고 있다. 상무대 근무지원단 제공

리 FIRO-B는 집단 속에서 개인이 갖는 욕구를 4가지로 수치화하는 검사법입니다. 자신의 검사 결과를 받아들면 참가자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프로그램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는 것이죠.”

심리 검사를 통해 각자의 행복 점수를 알아본 후 행복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행복을 실습해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중에서도 ‘입관 체험’이 가장 인상 깊은 순서로 꼽힌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착했다는 가정 아래 자신이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직접 관 속에 눕는 경험까지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깨닫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년간 실제 시행하면서 이미 효과를 검증받은 프로그램이지만, 신 중령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도 소홀하지 않고 있다.

“육군은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올해 부대 사정이나 초급간부 여건에 따라 2~12회 초급간부 행복플러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 재참가를 원하는 간부들도 많아 콘텐츠를 조금씩 변형시킨 세 개 안을 마련했습니다. 한 번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간부도 지루함 없이 다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부대도 상황에 따라 최적의 교육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죠. 일종의 프로그램 리뉴얼인 셈입니다.”

“성공적인 초급간부 행복플러스 실현을 위해서는 지휘관의 관심과 군종장교의 헌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 신 중령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군종은 60여 년 역사 속에서 꾸준히 인성교육을 의미하는 ‘인격지도’를 해왔고 그중 한 모습이 초급간부 행복플러스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성과 소명 의식, 열정을 가진 군종장교들이 진행하는 행복

플러스에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이 프로그램이 초급간부는 물론 병사, 군인가정, 중견간부까지 확장될 길 바랍니다. 초급간부가 행복해야 우리 군이 행복하듯 병사와 중견간부,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 군도 행복할 수 있니까요.” 글·사진=김가영 기자

■ 편집=유현애 기자



입시 부담과 미래 불안으로 불행하다 느끼는 청년 세대 그대로 입대... 군대 와서도 행복하기 힘들죠. 전우와 함께 돕고 희생하는 과정에서 가까이 있는 행복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초급간부 행복플러스’ 프로그램 직접 개발·시행

기존 심리검사 업그레이드... 입관 체험 등 다양한 교육 ‘호응’

“지휘관의 관심·군종장교의 헌신 무엇보다 중요” 당부도